

전 남

연가 안쓰는 장흥 공무원들 보상비 대신 휴가비로 달라

주 5일제 등 쉬는 날 많아 대부분이 기피

공무원 연가일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연가보상비 제도를 없애고 휴가비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공무원 사회의 시대적 욕구에 맞지 않아 연가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의 경우 지난 한해 총 532명 연가대상 공무원에서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 수가 무려

206명(39%)에 달하고, 1일만 사용한 공무원 수만도 125명(23%)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연가사용을 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연가사용이 가능한 장기 근속자 500명중 20일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연가 일수는 12일로 단 1명이 이를 사용했다.

이 같이 공무원들이 연가사용을 꺼

리는 이유는 주 5일제 실시가 공무원 사회에 정착되고 있는데다 축제와 행사 등 연가 때의 대체휴무 제도 등으로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연가보상비를 그대로 지급받으려는 심리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일선 대다수 공무원들은 정부가 무작정 연가를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연가보상비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체와 같이 휴가비로 대체하는 방안이 공무원 복지를 위한 처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우의도 다지고 갯벌 체험도 하고

보성 청년회소(회장 임용민)와 울산 청년회소(회장 최준혁)회원 가족들이 지난 22일 보성군 득량면 선소 어촌체험마을 앞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으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선소마을은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어촌체험 마을로서 체험장 1개소와 체험관광,어촌체험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보성군제공>

민간인 학살 막은 고 안중삼 구례서장 동상 건립

전남경찰, 구례궤내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린 '한국판 선덜러 리스트' 고 안중삼 구례서장(1903~1977년)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사진)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구례경찰서에서 유족과 안재경 전남경찰청장,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동상은 안 서장이 주민을 방면할 당시 연설했던 경찰서내에 좌대 2.4m, 동상 3.5m의 청동제질에 당시 전투복 차림의 전신상으로 제작됐다.

경찰은 2월부터 유가족이 포함된 추모사업단을 꾸려 사업에 나섰으며, 구례군은 건립비용 5000만원을 지원했다.



안 서장은 북한군이 물밀듯이 남하하던 1950년 7월 24일 유치장에 수감된 국민보도연맹원 480명을 풀어줬다. 이들은 이미 상부로부터 사살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당시 안 서장은 "여러분을 모두

방면한다. 내가 반역으로 몰려 죽을지 모르지만 혹시 죽으면 내 혼이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돼 달라"고 연설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고흥 녹동항, '제주도 관문' 급부상

2시간 10분대 쾌속선 28일 취항

남해안 물류 거점항 입지 탄탄

남해안의 물류 거점항인 녹동항이 제주도의 관문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흥 녹동~제주간을 2시간10분대에 주파하는 쾌속선이 28일 녹동신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들어간다.

(주)남해고속의 '아이리스호(사진)'는 총수 2500t으로 승객 551명과 승무원 65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평균시속은 35노트로, 2시간10분이 소요된다. 녹동에서 오후 4시에 출발



해 제주에 6시 10분에 도착한다. 제주에서는 오전 9시30분에 출발, 녹동에 11시 40분에 입항한다.

요금은 성인 4만2500원(특별수송기간 4만6600원)이며, 소아는 2만1500원(특별수송기간 2만3300원)이며, 고흥군민과 제주도민, 중·고등학교 생 단체(20명이상)는 20% 할인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수질 분석 기술 교류 7개 검사기관 워크숍 K-water 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 7개 공인 수질검사기관들이 처음으로 분석 및 수질개선 협력체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연다. 25일 K-water 전남지역본부 상 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영산강환경유역청, 영산강 물환경연구소, 광주수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순천시·목포시 수질검사기관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수질관리 및 분석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고 국내 수질정보 교류 등 분석기관간 기술교류를 통한 업무협력 체계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 북

자동차 부품 기업 '일강' 김제 지평선단지 첫 등지

'뿌리산업' 육성 기대

전북도와 김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뿌리산업'에 주력할 첫 기업이 김제에 등지를 틀었다.

뿌리산업은 구조와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공정, 용접 등 6개 업종을 통칭하며 소재를 부품화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산업이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산업, 항공산업 등의 토대가 된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일강은 24일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부지에서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건설 김제시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일강 김제공장은 5만㎡부지에 연달까지 2500㎡ 규모의 공장을 완공해 80여명을 채용한다. 이듬해부터는 자동차 변속기를 비롯한 부품을 국내외 자동차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세민 대표는 "공장 준공 후 5년 동안 850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본사도 김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설 시장은 "2010년 산단 착공이후 거둔 첫 성과로 전북도 전략산업인 자동차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새만금 방조제 명품관광지로

농어촌공, 마스터 플랜 수립...2014년부터 10년간 2305억 투입

피라미드 펜션·아쿠아리움 등 복합형 관광·레저 중심지구 개발

오는 2014년부터 새만금 1·4호 방조제 일대가 관광지 개발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공)는 최근 새만금 1·4호 방조제 일대를 관광중심의 다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발전 전략인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농어공사는 그동안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보고회 등을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했으며, 2014년부터 10년간 2305억원을 들여 새만금방조제 일대를 '복합형 관광·레저 중심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능별 개발 전략으로는 ▲관광단지 ▲생태문화 ▲수변위락 ▲역사문화 ▲생태휴양 등 5개 테마로 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기본구상에 들어간 방조제 명소화 사업은 새만금 5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세계 최장 새만금방조제(33.9km)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군산시 비응항 앞 4호 방조제 다용도 부지(54만8000㎡)는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생명, 감성, 재미, 상생을 테마로 한 관광, 레저, 상업, 문화시설 복합형의 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세부 계획으로는 전시콘텐츠 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와 숙박시설인 재생의 마을·피라미드 펜션, 수변레저 시설인 케이ابل파크, 어린이 테마파크, 핵심집객 시설인 아쿠아리움과 해양생물 조각공원 등이 들어선다.

농어공사는 관계자는 "4호 방조제 명소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많이 침체한 비응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영석기자 nogusu@

유통기한·위생기준 위반 학교 급식업체 영구 추방

도교육청

전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위생기준을 위반하다가 적발된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영구히 추방할 방침이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최근 열린 확대간담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 보관 및 위생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앞으로 절대학교급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식품약품 안전청에서 지난달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도내에서 10개 업

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납품을 차단시켜도 사업자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참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도높은 대책을 검토한 뒤 법률자문을 받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돼 공급 중단업체로 지정된 뒤 편법으로 사업소 명칭, 사업자 명칭을 바꿔 실질적으로 다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을 속이는 것으로 보고 사기죄 등 어떠한 죄책을 물어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전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대 치과대학과 예수대 간호학과 교수와 치과 의사, 학생 등 50여명이 지난 23일 순창군 구림면에서 하계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대 치과대학과 예수대 간호학과 교수와 치과 의사, 학생 등 50여명이 지난 23일 순창군 구림면에서 하계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 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초등생 대상 역사 강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관장 정준기)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역사관련 내용인 한국사 연대표 특강, 사회적 미러보기 등 총 4강과 등이다. 참

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8월 3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3-450-4541) /전북취재본부=박영석기자 nogusu@

남원시 '조상 땅찾기 서비스' 호응

남원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조상 땅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345명에게 1287필지(189만㎡)를 찾아준 데 이어 올해도 현재까지 131명에게 425필지(46만㎡)의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찾기 사업은 전국 지적 전산망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임야 대장에 조상 이름을 남아있으나 유산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조지해 주는 서비스다.

문의(063-620-6132)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27일 '구시포 해변콘서트'...가수 구창모 등 초청

'2012 구시포 해변콘서트'가 27일 오후 7시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고창군과 상하면 기관사회단체 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피서철을 맞아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나인뮤지스, 김용임, 유지나, 구창모, 김병용, 현진우, 트리탑스, 소리스, 미소라 등이 출연해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 님의 뽕 축제' 27일 부안댐 분수광장

'제4회 부안 님의 뽕 축제'가 27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부안댐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안관리단(단장 김윤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안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부안에서 생산되는 뽕 관련

제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축제장에서는 뽕 관련 18개 업체 100여종의 식품을 전시·판매하게 된다. 이곳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각종 이벤트를 마련해 뽕 제품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